

연구출판윤리

보라매병원 내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 상 현

연구출판윤리는 연구와 출판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생명윤리와도 연관이 있다. 연구의 경우, 연구주제, 연구대상과 규모, 대조 군의 설정, 연구자료의 수집 방법 등을 정리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명문 및 동의서 그리고 연구자료 입력양식 등을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 준비 단계에서부터 연구의 종료와 결과 발표 및 출판에 이르기까지 의학연구는 윤리적인 고려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출판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날조, 변조, 적절한 인용과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출판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절에 대해서는 최근 검색 엔진을 이용한 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연구출판윤리에서 이해관계 (conflict of interest)는 논문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데, 이는 논문 출간이나 연구내용을 발표할 때 연구자, 심사자, 편집인 등이 특정 회사나 단체에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역할과 학술지 편집인과 심사자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학술지에 접수된 논문 원고는 편집진의 사전검토, 전문가심사, 편집인의 출판결정, 편집을 거쳐서 출판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요구되는 윤리적인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출판윤리 관련 사례 등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내용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주로 발표할 것이다.